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기다렸던 시간은 간식시간 이었고 가장 지루한 시간은 신부님의 강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치면서도 들었던 복음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의 “탈 리다 쿵!”이었습니다.

아마 또래 이야기라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하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식을 엄청 사랑하시구나 하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 명까지 주고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예배를 주도하고 회당 건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인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제 딸아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 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 12년이나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됩니다. 얼마나 절망적 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당장은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였습니다. 고민 끝에 답을 썼습니다. “석탄을 팔아 알코올을 산다.” 답안지를 본 선생님은 학생을 불러 야단치기보다는 “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알고 있구나. 너의 기발한 생각이 좋아 후한 점수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답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너그러움에 반하여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우리 목숨을 살려 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너그러움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열심히 했을까요? 하루 일과 중 예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식사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호 긋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부끄러워 성호도 긋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모른척 할 때도 있었고 어쩌면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시간을 지체해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도 견디었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도록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옥산 본당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교황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느님을 향하는 믿음 안에서 새 희망과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이끎니다. 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전례에 함께 합시다.

입당성가 : 26번 ‘이끌어 주소서’

본기도

†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1장 13절 -15절, 2장 23절-24절

안 내 : 정녕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묵 상 :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본성의 모습에 따라 지어진 이들입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2서 8장 7절, 9절, 13절-15절

안 내 :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묵 상 :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 안에 사는 이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넘침도 없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5장 21절-43절

강 론 :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영성체 후 묵상

간절함이 곱절로 더해지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
몸과 마음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질 때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회당장 아이로와
열 두해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던 이름 모를 여인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침묵>

하느님과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죽음도 갈라 놓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드립시다.
주님,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0번 ‘믿음으로’

※ 공소사목 성금

김득순	10,000원
와룡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69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교구내 사제 성폭력 피해 접수처 개설

- 전화번호 : 054-856-3117
- 전자우편 : adcd3117@naver.com
- 담당 : 안상기 미카엘 신부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안동 -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7월 2일, 9일, 16일
함창 본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특강

- 제목 :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GMO 상용화와 농업 밥상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문경지구 7월 6일(금) 19:30 모전동 성당
북부지구 7월 13일(금) 19:30 휴천동 성당
- 강사 : 김은진 교수(원광대)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축제

- 일시 : 7월 15일(주일) 10:00~16:00
- 장소 : 구담성당, 쌍호분회 일대

■ 2018년 평협 하계연수

- 일시 : 7월 7일(토) 16:00 - 8일(주일)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사목회장단, 제단체장, 평협 상임위원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예수회 새 사제 첫 미사

- 일시 : 7월 1일(주일) 10:30
- 장소 : 영덕 성당
- 주례 : 김주찬 알베르토 신부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7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사-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 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꽃동네 젊은이 성령 피정

- 일시 : 8월3일(금) 13:00~5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 회비 : 30,000원
- 문의 : 010-5490-5345

■ 제17회 초록빛 교실(가족 캠프)

- 일시 : 8월 4일(토)14:00~5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단체
- 참가비 : 1인 2만원(3식 및 간식 포함)
- 신청 : 교구 사목국(054-858-3114~5) 선착순 100명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교구설정 50주년

<교육위원회 특집>

교구설정 50주년 교육 프로그램 안내



1. 50주년 교육의 개요

1) 50주년 교육의 필요성

- (1)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구설정 50주년’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주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주제로 성찰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 (2) 이대로 50주년을 맞는다면 ‘교구설정 50주년’이 1회적 행사로 끝나고,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2) 50주년 교육의 목표

- (1) 교회(본당)와 신자들이 교구설정 50주년의 신앙적 의미를 깨닫는다.
- (2) 교회(본당)와 신자들이 교구설정 50주년 신앙을 삶으로 살기 시작한다.

3) 50주년 교육 운영 : 선택형 교육 - 본당 순회교육

본당이 산재해 있고, 본당별 특성과 상황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중에서 본당이 선택하면 교육팀이 본당을 방문하여 교육한다.

- (1) 강론 : 주일 교중 미사 강론(30분)
- (2) 특강 : 주일 미사 후 특강(1시간), 본당에서 선정한 신자와 희망자 참여
- (3) 워크숍 : 주일 오후 워크숍(4시간), 본당 선정 신자와 희망자 참여
 - * 본당의 희망에 따라 강론 + 특강, 혹은 강론 + 워크숍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본당 상황에 맞추어 평일에 1회(특강) 또는 여러 회(워크숍)로 운영 가능
 - * 작은 본당은 이웃 본당(지구)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4) 교육팀

교구설정 50주년 교육위원회에서(사목국에 위임) 평신도 중심으로 선발, 위촉하고, 사목국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2. 50주년 교육 내용

1) 교구설정 50주년의 의미

- (1) 50주년은 안동교구교회의 성년(희년) →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의 때이며, 동시에 성년의 신앙을 살아가야하는 과제를 안겨주는 때이다.
- (2) 50주년은 안동교구교회의 50년의 삶이다. → 교회사의 맥을 짚으면 정체성이 확인된다.

2) 교구설립 50주년 살아가기

- (1) ‘기념일로서 50주년’ / ‘신앙의 삶으로서 50주년’
*안동교구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구성되어 왔다.
- (2) 안동교구의 정체성을 우리는 ‘교구사명선언문’으로 선포하고 있다.
*선포한 사명선언문 - 실천이 과제이다.
사명선언문을 삶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사명선언문을 신앙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50주년이 넘겨주는 과제들

- (1) 선포와 실천의 괴리 : 안동교구교회의 정체성이 주장으로 머물고 실제 교회(교구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음을 고백한다.
- (2) 다시 선포하는 ‘교구사명선언문’ : 새 50년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교구설정 50주년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3. 50주년 교육 방법

1) 강론

- (1) 신자들의 심정, 경험을 대변하는 생활 내용과 관련짓는다.
- (2) 강론이 기존의 답을 허물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 되게 한다.

2) 특강

- (1) 참여자가 대화하고 활동할 기회를 가지게 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 (2) 강론과 함께라면 강론 주제를 발전시키고, 구체화, 실천화에 유의한다.

3) 워크숍

- (1) 참여자가 워크숍에서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선택, 결단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 (2) 참여자들은 함께 대화 자료를 준비하고(전체 활동), 모둠으로 대화하고(모둠 대화), 모둠대화를 발표하는(전체 공유) 과정을 순환하도록 한다.



살림터 이야기

작은 아버지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작은 아버지가 입원하셨다. 놀라서 달려간 병원에 96세의 작은 아버지가 누워계셨다. 지난해 추석에 뵈었을 때만 해도 건강하셔서 거뜬하게 백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작은 아버지였다. 어지럽게 달려있는 호스가 낫설었지만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했다. 더 왜소한 체구에 기력이 많이 쇠하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의 어른역할을 하셨던 작은 아버지였다. 내가 집안의 내력과 여러 일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흰 수염을 날리며 말을 타고 다니셨다는 할아버지 얘기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죽은 줄 알았던 막내삼촌이 포로가 되어 북한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작은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였다. 족보 관리며 문중 일을 내게 맡기셨고, 조상들의 묘 위치까지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자신이 하던 일을 조카인 내가 이어가기를 바라셨다.

평생을 부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당당하셨다. 소신이 뚜렷했다. 말씀도 잘하셔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끝이 없었다. 나는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늘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진 않았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쳐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인생관이라 짐작했을 뿐이다.

병상에서도 내가 온 것을 무척 반가워 하셨다. 아직도 내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았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정신은 더 맑으신 것 같았다. 곁에 있던 간병인이 어쩔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다. 밤새 짜증을 내며 힘들어 하던 분이 조카랑은 이야기도 잘 한다며 입을 삐죽거렸다. 오랜만에 작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려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상을 받으러 대구에 갈 일이 생겼다. 옷도 옷이려니와 마땅한 신발조차 없어 걱정만 하고 있을 때였다. 작은 아버지가 오시더니 내 손을 잡고 신발 가게로 데려가셨다. 제대로 된 운동화를 신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작은 아버지가 더 고맙고 멋있어 보였다.

작은 아버지는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는 듯 했다. 삼형제 중 유일하게 장수하시지만 역마살이 끼어 여러 곳을 전전하셨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농사며, 장사를 하면서 객지를 떠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30년 전이었다.

작은 아버지는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사셨지만 나는 가슴에 품은 한을 알고 있다. 일찍 세상을 떠난 형님과 6.25로 생이별을 한 동생을 늘 그리워 하셨다. 특히 포로가 되어 북한에 살고 있던 동생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몇 번이나 신청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계시는 작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는 보고 싶던 형제들과 만나서 못다 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를 배웠고 뿌리의 소중함도 배웠다. 작은 아버지의 삶 자체가 내게는 산교육이 되었다.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작은 아버지가 좀 더 오랫동안 곁에 계시주기를 바란다. 함께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이다. 진작 더 많이 배우고 알아두지 못해 후회가 된다. 믿고 의지할 집안의 기둥이 없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가 젊어져야 할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작은 아버지의 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